

거리두기 풀자 학교폭력 원위치...100명중 2명 “당했다”

코로나 시기 1%대에서 올해 2.0%로 “전면등교로 접촉 늘어 학폭도 증가” 언어폭력 42%...사이버폭력 초·중·고

일상회복에 따른 전면등교 시행으로 학생들 간 접촉이 많아지자 학교폭력 빈도도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동안 초·중·고 3학년생 62만339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51만1717명(82.1%)이 응답했다.

그 결과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1만179명(2.0%)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있다고 답했다. 피해응답률은 코로나19

를 거치며 2020년 1.1%, 2021년 1.2% 등으로 낮았으나, 올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0%)과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

이 중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이 42%로 가장 많았다. 신체폭력(15.7%), 집단따돌림(13.1%), 사이버폭력(9.4%), 스토킹(5.9%), 금품갈취(5.3%), 강요(4.8%), 성폭력(3.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언어·신체폭력 및 금품갈취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가 4.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0.5%, 고등학교 0.2% 순이었다. 특히 언어폭력이 초(43.3%),

중(36.2%), 고(40.6%) 모두 가장 높았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초(7.9%), 중(14.7%), 고(15.7%) 등 학년이 오를수록 피해응답도 많았다.

피해 장소로는 ‘교실 안’이 25.8%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밖 중에서는 ‘공원·놀이터·골목 등’이 13.9%로 가장 높았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27.7%), ‘학교 일과가 끝난 후’(19.4%) 등이었다.

피해 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같은 학교 동급생이 75.3%로, 이 중 같은 반 학생이 43.7%를 차지했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비율은 91.5%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늘었다. 피해 신고 비율은 2019년 82.6%, 2020년 83.7%, 2021년 89.8% 등 꾸준히 상승 중이다.

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

은 8.5%였다. 미신고 이유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32.3%), ‘스스로 해결하려고’(21.7%), ‘이야기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18.3%) 순이었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0.5%(2701명)로 지난해 조사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초등학교 가해응답률이 1.2%로 모든 학교급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가해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2.6%)로 가장 높았고,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24.4%), ‘상대방과의 오해와 갈등’(12.6%)이 뒤를 이었다.

가해 학생들은 ‘나쁜 짓임을 알게 돼서’(33.9%), ‘선생님과 면담하고 나서’(15.8%), ‘피해학생과 화해하고 친해져서’(14.3%) 등을 계기로 학교폭력을 중단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5%(2만2833명)으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늘었다. 초등학교 8.7%, 중학교 3.5%, 고등학교 0.9% 순이다.

교육청은 “전면등교 시행 등 학생들 간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이달 마지막 주부터 3주간 ‘언어문화개선 주간’을 운영해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사 중 ‘관계회복 조정가’를 양성하기 위한 직무연수, 서울경찰청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향성을 파악해 시의적절한 예방 대책과 중장기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일상 생활하는 시장 상인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물러난 6일 오전 전남 여수시 교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 압수수색

6일 오전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아내는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에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

이 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과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위해 이날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고 불응했다.

서선욱기자

추석연휴 ‘119상담’ 평소 2.7배...소방청 “인력늘려 근무”

평소보다 150명 증원

소방청이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질환 상담 건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19구급상황지원 인력을 확대, 운영한다.

소방청은 6일 “추석 연휴 동안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119를 통해서 응급 질환 관련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6만6957건이다. 1일 평균 1만1159건으로 연휴가 아닌 평상시 1일 평균 4081건의

약 2.7배 수준이다.

전국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24시간 상주하며, 병의원·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응급 질환 관련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119.go.kr) 및 카카오톡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의료 상담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평소보다 150명 늘어난 440여명이 이상 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37대 증설한 119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소방청은 연휴 기간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운영 중인 병의원·약국 등 일반 정보는 안내 웹사이트(http://www.e-gen.or.kr/egen)를 우선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응급하지 않은 의료 상담은 재택치료가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